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12. 10.(금) 11:00	배포일시	2021. 12. 10.(금) 09:3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승한 (044-215-4530)	담당자	김태웅 서기관(kimtw41@korea.kr) 류한솔 사무관(feelrhs@korea.kr) 심민준 사무관(smj2871@korea.kr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김민표 (044-202-6220)		김희선 사무관 (kimhs5023@korea.kr)
	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염보영 (02-2100-7675)		강여울 서기관 (yukang07@mofa.go.kr)
	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김나나 (044-203-2391)		유혜원 사무관 (hyewonyu@korea.kr)
	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박선우 (044-201-1311)		지수근 사무관 (abcdefghijkl@korea.kr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윤성혁 (044-203-4210)		허유석 사무관 (jameshur89@korea.kr)
	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임대식 (044-202-2310)		이고운 서기관 (goun.lee@korea.kr)
	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장이재 (044-201-6701)		서지원 서기관 (g1seo@korea.kr)
	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정채교 (044-201-4600)		장원 사무관 (won7392@korea.kr)
	해양수산부 장기전략기획팀 최장원 (044-200-5215)		김지인 사무관 (imjinjin@korea.kr)
	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주선태 (043-719-1711)		이성 사무관 (twosung1@korea.kr)
	국세청 소비세과 김준우 (044-204-3371)		서승희 사무관 (mwms9799@nts.go.kr)
	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최연수 (042-481-7760)		박수경 사무관 (skskpark@korea.kr)
	조달청 원자재비축과 노배성 (042-724-7183)		전연수 사무관 (jys21c@korea.kr)
	산림청 임업통상팀 정연국 (042-481-1830)		임주영 사무관 (pancake@korea.kr)

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

- 이역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.10일(금) 09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였음
 - * 과기정통부, 외교부, 문체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환경부, 국토부, 해수부, 식약처,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산림청 등 참석
-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부처간 검토작업 및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(안) 및 EWS 등급 배정 결과, 품목별 EWS 점검 결과,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

① (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(안)·EWS 등급 지정) 우선 주력산업·ICT·의약품·농림수산·교통·환경·산림·기타 생활밀접 분야에 걸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(안)을 논의

- 그간 국내경제 영향, 대외의존도, 단기적 시급성, 국내 생산·수입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부처별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하였으며, 이를 토대로 100여개의 1차 선정(안)을 마련함
 - 해당 품목은 수급차질시 산업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며, 대부분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임
 - 정부는 금일 논의사항 등 추가적 협의를 거쳐 대외경제 전략안보회의 계기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지정을 확정하는 한편, 금일부터 대상업종·범위 등을 보다 확대하여 2차 선정작업에 즉시 착수할 계획
 - 아울러, ①대외의존도가 높고 일정이상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4,000여개 EWS 품목에 더하여, ②부처판단하에 EWS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을 50여개 추가로 선정하였고,
 - 전체 EWS 대상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의 시급성·중요성을 감안하여 A-B-C-D의 4단계로 구성된 EWS 등급을 부여
 - 중요하고 시급한 품목에 모니터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급별로 점검 주기* 및 점검 방식 등을 차별화
- * 예: (A등급) 매주 (B등급) 격주 (C등급) 매월 (D등급) 분기
- 다만, 품목별 등급은 수급여건 및 관리 시급성·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, 운용해 나갈 계획임

② (EWS 점검 결과) EWS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그간 관계 부처별 모니터링 실적 및 소관품목별 수급상황을 점검하였음

① (제조업·주력산업) 재외공관(상무관)·코트라 무역관 중심 해외진출 공급망 협의회를 통한 점검체계*를 구축

* 20대 우선관리품목의 가격·수급·현지업체 동향 등 '핵심품목 관리카드' 작성

- 점검결과, 20대 우선관리품목 등 상당수 품목이 환경규제, 전력난에 따른 수출국 감산 등으로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,
 - 특히, 이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운 품목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·대응이 요구
- 아울러, 무역상사·수출기업 등의 해외조직망 활용 및 적기대응과 수입협회 등의 수입품목 점검시스템 활용을 위해 무역협회內 공급망 TF를 발족(12.9)하였으며
 -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와 유기적 협업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음

② (ICT) 유선 네트워크, 반도체, SW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(11월말)하고, 유관기관 설문조사(3차례) 및 기업애로 접수*

* 디지털 수출·공급망 지원센터(NIPA 산하) 통해 20여건의 기업 애로 접수

- 코로나 일상회복,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네트워크·이동통신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
- 수입통계 분석시, 상당수 품목이 지난 2년간('19→'21.1~11)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(80% 이상)을 유지하는 등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하나 대체로 수급차질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관측

③ (농식품) EWS 가동 이후 4개 작업반* 중심 3차례 점검 실시

* 총괄·기타품목반/곡물반/비료반 등, 11월말~12월초 3차례 점검회의 개최

- 주요 곡물·사료·식품 원료의 경우, 기존 재고 및 기 확보한 계약물량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수급 우려는 제한적이나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상승 동향도 관측
- 일부 비료원료의 경우 수출국 수출검사 조치 등 수급차질 우려로 수입처 다변화, 원료 공동구매 등 진행 중

- ④ (수산물) 협회 모니터링, 민관협의체(11월말)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 중이며, 추후 품목별 업계간담회(12월중) 추진 예정
- 수입차질시 국내 양식업에 영향을 주는 품목 중심으로 관리중이나 현재 공급차질 등 특이동향은 없는 상황
 - 비교적 수입선이 다변화되어 있고 단가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핵심품목의 11월 수입량 증가 등 수급도 원활
- ⑤ (의약품) 공급망 점검회의(3회), 간담회 등을 통해 수급 점검 및 업계 애로를 청취
- 현재까지 원료 등 수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국내재고에도 여유가 있어 수급 관련 특이사항은 없음
 - * 점검기간(11월말~12월초) 동안 2개 품목 수입이 차질없이 진행
 - 다만, 물류비용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
- ⑥ (산림) 유관협회 및 수입업체 점검 결과, 임산물·목재·석재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품목 가격 상승, 물류애로 등 불안요소도 상존
- ⑦ (기타) 철도차량, 환경, 문화·스포츠, 주정(주류·산업용) 등 여타 국민 생활밀접 품목도 EWS 모니터링 체계가 신설
- 아울러, 관세청은 100여개 핵심품목(10일단위) 및 쏘 품목(월간)을 대상으로 품목별 소관부처에 10일단위·월간 수입통계를 제공하여 상시적·체계적 EWS 운영을 지원 예정
- ⑧ (해외동향) 23개국 재외공관*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관별 경제안보 담당관 지정 및 핵심품목 점검 정례협의체 가동
- * 年 1백만불 이상 수입 高의존품목 20개 이상 해당 국가(19개) 및 자원부국(4개)
 - 주요국 공관 모니터링 결과, 美 항만적체·中 환경규제 등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, 주요 광물·자원 부국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도 제기
 -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일부 품목의 경우, 최근 수출국 국내 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가격상승 움직임도 관측

③ (20대 품목 및 요소(수) 수급안정화 방안) 주력산업 활용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 품목 및 요소(수) 수급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

○ 우선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된 4개 품목 및 최근 수급애로를 겪은 요소·요소수의 안정화를 위해,

- 폐자원 재처리·재활용과 함께 생산설비 구축 등 국내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, 정부·민간·공동 비축 등 전략적 비축 확대, 동남아·중남미·호주 등지 수입선 다변화, 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 병행

○ 기타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기반 확충, 수입다변화, 국내비축 확대 등 수급안정화 과제 구체화

□ 정부는 금일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대외 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100여개 경제안보핵심품목 1차 선정 및 20대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,

○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여타 80여개 품목의 안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핵심 품목도 지정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